

退溪와 心經附註

—退溪書誌의 研究 其三—

慶北大學校 助教授 尹 炳 泰

《目 次》	
I. 緒 言	IV. 心經附註와 退溪
II. 心經附註의 成立	1. 心經附註에 接한
1. 心經의 撰者와 刊行	2. 心經附註의 精讀과 中廢
2. 心經附註의 撰者와 刊行	3. 心經附註의 再究와 誦讀
III. 退溪後論 以前의 版本	4. 心經附註에 대한 問答
1. 中宗18年(1523) 以前 光州刊本	5. 心經附註의 讀書指導와 敎育
板本	6. 心經附註의 校訂
2. 明宗19年(1564)頃 平壤刊 木板本	V. 結 言
3. 明宗19年(1564)頃 海州刊本	

I. 緒 言

이 研究는 前稿¹⁾에 이어 세번째로 發表하는 退溪書誌에 關한 研究이다. 첫번째 發表한 研究에서는 退溪書誌의 研究를 위한 目的과 方法을 提示한 다음 退溪의 著作을 그의 〈年譜〉에서 年度順으로 추려서 引用하였고, 그리고 《聖學十圖》의 成立과 內容 및 版本을 밝혔다.

두번째 研究에서는 첫번째 研究에서 提示하지 못하였던 退溪의 現存 著作을 《韓國古書綜合目錄》에서 추려 109種을 列擧하였으며, 또 《朱子書節要》에 대하여 그 成立 內容・引用書・版本・存本 그리고 影響을 받은 著述에 대하여 論及하였다.

이 研究에 있어서는 退溪思想의 形成에 있어, 특히 그의 心學思想에 影響을 미쳤던 《心經附註》에 대하여 書誌的인 究明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心經附註》의 原典 著作者와 그 成立에 대하여 略述하고, 우리나라에 《心經附註》가 傳來한 經緯와 退溪의 〈後論〉 成立 以前에 刊行된 版本을 알아본 다음, 退溪와 《心經附註》와의 關係를 살펴보고자 생각한다.

이 研究를 이룩하기 위한 方法과 制限點은 前稿들과 거의 같게, 우선 文獻 調查에 의한 記述的 方法을 쓰며, 版本에 대하여는 存本이 알려진 것은 實物을 一一히 調查하

1) 尹炳泰, “退溪書誌의 研究”, 退溪學研究, 第四輯, (1976. 12), pp. 87~152.

2) 尹炳泰, “退溪의 著書와 그 刊行”, 退溪學의 體系的 定立, 大邱: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1977, pp. 83~155.

여 記述하며 可能한 限 圖示를 많이 하여 版本을 理解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地域的인 事情에 의하여 實物을 接할 수 없는 制限이 있을 때에는 文獻의 提示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

II. 心經附註의 成立

1. 心經의 撰者와 刊行

《心經附註》는 그 卷一의 다음 行에 「西山眞氏」라 있고, 또 程敏政이 쓴 〈心經附註序〉의 머리에서도

西山先生眞文忠公 嘗捫聖賢格言 爲心經日編… 晩生末學 何所知識輒手錄成帙·

이라 있는 것으로 보아 文忠公 西山 眞德秀의 《心經》을 바탕으로하여 程敏政이 附註한 책임을 알 수 있다.

眞德秀는 宋나라 사람이다. 《宋史》〈列傳〉에 들어 있는 그의 傳記에 따르면, 처음 字는 景元이요 나중에는 景希라고 고쳤고, 福建의 浦城사람이다. 慶元 5年(1199)에 進士로 登第한 後에 南劍州의 判官을 除授받고, 이어 博學宏詞科에 合格한 다음 閩帥의 幕僚로 부름을 받아 太學正으로 되었다.

以後 계속하여 여러 官職에 任命되면서 마지막에는 資政殿學士 提舉萬壽觀衆 侍讀에까지 이르렀으며, 端平 2年(1235)에 나이 58歲로 卒去하였다. 그가 돌아가자 銀青光祿大夫가 追贈되었으며, 諡는 文忠으로 나렸다.

그는 벼슬에 있는지는 10년에 차지 않지만 奏疏를 지어바친 것은 數十萬言에 이르며, 僞學의 이름으로 近世大儒의 책들이 禁止되어 끊기게 된 것을 解禁케 하는데 힘써, 後世에 끼친 그의 功은 크다. 그에게는 《西山甲乙藁》·《對越甲乙集》·《經筵講義》·《政經》그밖의 여러 著書가 있으며, 《心經》도 그 一部이다.²⁾

眞德秀의 《心經》은 《心經附註》의 머리에 있는 〈心經總目〉에 따르면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卷一

書(大禹謨) 人心道心章

詩(魯頌) 上帝臨女章, (大雅) 親爾友君子章

易(乾九二) 閑邪存誠章, (坤六二) 敬以直內章, (損大象) 懲忿窒慾章, (益大象) 遷善改過章, (復初九) 不遠章

論語~子絕四章, 顏淵問仁章, 仲弓問仁章.

中庸~天命之謂性章, (詩) 潛雖伏矣章

2) 宋史(台北: 藝文印書館, 1970), 卷四百三十七, 第9張 뒷면~17 張 뒷면

卷二

大學～誠意章，正心章

樂記～禮樂不可斯須去身章，君子反情和志章，君子樂得其道章

孟子～人皆有不忍人之心章，矢人誨人章，赤子之心章

卷三

孟子～牛山之木章，仁人心章，無名之指章，人之於身也衆所愛章，鈞是人也章，飢者甘食章，魚我所欲章

卷四

孟子～雞鳴而起章，養心章

周子～養心說，通書聖可學章

程子～視聽言動四箴

范氏～心箴

朱子～敬齋箴，求放心齋名，尊德性齋

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眞德秀는 《書經》《詩經》《易經》과 같은 三經에서 모두 8篇, 《論語》《中庸》《大學》《孟子》와 같은 四書에서 19篇, 《樂記》에서 3篇, 周子の 글에서 2篇, 程子の 글에서 1篇, 范子の 글에서 1篇, 朱熹의 글에서 3篇, 合計 37篇의 글을 추리고, 거기에다 朱熹·程子, 程子에 관계되는 글을 引用하여 編纂한 것이다.

이 책에서 眞德秀가 골라서 실은 글들은 그가 지은 〈贊〉에서 말한대로 心學에 요긴한 것을 뽑은 것이다. 〈贊〉 끝에 쓴 顏若愚의 글에서

右心經 西山先生 據聖賢格言 自爲之贊者也 先生之心學 蘇考亭 而溯濂洛朱四之原 存養之功至矣·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眞德秀의 心學의 淵源은 위로는 孔子요 아래로는 朱子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眞德秀가 《心經》을 編纂한 것은, 그의 弟子인 王邁가 쓴 글에 따르면

西山先生眞文忠公 心經一書… 乃先生再守溫陵日所著·

라 있어, 그가 溫陵의 太守로 再任되었던 時節인 것 같다.

眞德秀가 編纂한 心經은 그의 生存時에 이미 刊行되어 行世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程敏政이가 附註할 때의 底本은 〈贊〉 끝에 있는 글에

右心經·其行已也 復鐫板于郡學·端平改元十月既望 後學顏若愚敬書

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端平 1年(1234) 10월에 顏若愚가 郡學에서 刊行한 木板本을 利用한 것 같다.

宋에서는 淳祐2年(1242) 正月에 眞德秀의 門人인 王邁의 序를 붙여서 《政經》과 《心經》을 合刻하여 刊行한 一本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刊行한 모든 版

本에는 序가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程敏政이는 明代에 와서도 通用되었을 淳祐 2年 刊本을 利用하지 않고, 端平 1年刊本을 採擇한 것 같다.

1920년에 上海新學社에서 刊行한 《眞西山心經》이라는 一本에 引用한 《四庫全書提要》의 글에 의하면

端平元年 顏若愚授於泉州府學.³⁾

이라 하였으니, 顏若愚가 郡學이라 한 곳은 泉州府의 府學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心經附註의 撰者和 刊行

《心經》을 附註한 程敏政은 閩나라 사람이다. 그의 傳記는 《明史》의 列傳에도 실려 있는데, 그에 따르면 字는 克勤이이고 休寧의 사람으로 南京兵部尚書였던 信의 아들이다. 10歲時에 아버지의 任地인 四川에 따라가자, 巡撫로 있던 羅綺는 그가 神童인 을보고 임금에게 薦擧하였는데, 英宗이 보고 기뻐하여 翰林院에서 讀書하게 하였다. 그때 學士로 있던 李賢彭은 그를 매우 사랑하여 사위를 삼았다. 成化 2年(1466)에는 進士로 及第하여 編修에 任命되었다. 여러 벼슬을 지나다가 弘治 12年(1499)에는 科擧에 관계된 일로 下獄되었으나 곧 出獄하였고, 出獄 4日만에 죽었다 한다. 卒後에는 禮部尚書의 贈職을 받았다.⁴⁾

程敏政이가 《心經附註》를 編纂한 것은 〈心經附註序〉 末尾에 있는 날자가

弘治五年壬子七月望 後學新安程敏政謹序

라 있는 것으로 보아, 弘治 5年(1492) 7月頃이었던 것 같다. 《明史》에 있는 그의 傳記를 보면

弘治元年冬 御史王嵩等 以雨災 劾敏政因勒致仕 五年起官 尋改太常卿 兼侍讀學士掌院事.⁵⁾

라한 것으로 보아, 그가 太常卿으로 任命되기 直前の 不遇하였던 때에 《心經》을 附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가 《心經》에 附註한 理由에 대하여 《心經附註》의 卷末에 있는 글에서는 《政經》과 關聯하여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西山先生 心·政二經梓行已久… 若政經則 雖首以經訓 而附以漢晉隋唐守令之事 凡先生所 歷州郡榜示諭告之文 亦雜附之… 豈先生嘗手錄 經史牧民之要 備省覽而後人附會以成之 慈與 心經相婉故邪 或者以心爲體 政爲用 庶幾成一家之說· 況聖人之政 必由身 而家·而國·而 天下… 故今獨取心經爲附註 而政經未暇及焉 以爲誠有得于心學·

3) 眞德秀, 眞西山心經 (上海: 上海新學社, 民國(1920)), 卷首.

4) 明史 (台北: 藝文印書館, 1970), 卷二百八十六, 第7張 뒷면~8張 뒷면.

5) 上掲書, 同面

이에 따르면, 《政經》에서 다른 聖人の 말마따나 政이란 반드시 몸을 걸쳐서 집안이나 나라 그리고 天下에 미치는 것이며, 心을 體로하고 政을 用으로하는 애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心經》을 먼저 附註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心經》의 附註는 곧 앞에서 든 王嵩 등의 彈劾에 의하여 고충스러웠던 時期의 경우와 連關시켜 생각하면, 그의 心情을 능히 理解할 수 있다 하겠다.

程敏政이가 《心經》을 附註한 體裁를 보면 우선 眞德秀가 이루어 놓은 글들을 轉記한 것 같다. 經書에서 引用한 것은 머리에 실고, 한字 내려서 眞德秀가 朱熹 등 여러 사람의 글을 추린 것을 실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程敏政의 附註는 「附註」라는 墨蓋子로 區分한 다음, 위의 引用文에 바로 이어 쓰고 있다.

附註할 때에는 眞德秀의 글도 자주 引用하였으니, 앞의 引用文보다 또 한字를 내려서 (즉 위로부터는 두字 내려서) 「西山眞氏曰·」云云이라는 글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附註를 하면서 程敏政은 가끔 자기의 생각도 붙인 것 같으니 「按」이라는 墨蓋子로 始作하는 引用文이나 글이 많음을 보아 알 수 있다. 《心經附註》는 編撰이 끝난 3個月後인 그 해의 年末에 程敏政의 弟子인 沙溪 汪祚에 의하여 刊行된 것 같다. 이에 대하여는 《心經附註》卷末에 있는 汪祚의 識文이 있어 알 수 있다. 그 識文에서 汪祚가

心經附註 我輩敬先生 本西山眞文忠公 心經爲綱 採摭程朱以下 大儒之言 不敢自私請刻之 以
惠後學 傳四方 使天下後世之人 曉然知心學之正傳 弘治壬子十二月望日 門生歙西少溪汪祚識

라한 것을 보면 그는 心學의 正傳을 위하여 스승의 著作을 스스로가 刊行할 것을 自請하였던 것 같다. 이렇게 《心經附註》의 刊行이 끝난 것은 우리나라의 年代로는 成宗 23年(1492)에 해당한다.

Ⅲ. 退溪後論以前の 版本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眞德秀의 著作에 대하여 關心이 컸던 것 같다. 그것은 太宗3年(1403) 10月27일에 明使가 《眞西山讀書記》를 가져온일⁶⁾에서 비롯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世宗은 16年甲寅(1434)10월에 甲寅字를 鑄造하자 마자, 이 《眞西山讀書記乙集大學衍義》를 甲寅字로 적어내었으며⁷⁾ 成宗12年(1481)12月28일에 明나라 皇帝가 《眞西山集》을 賜忝하자,⁸⁾ 中宗10年(1515)11月4日には 《眞西山讀書記》를 活字로 印出하라는 애기가 記錄된것⁹⁾을 보면, 眞西山의 著作에 대한 關心度를 짐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높은 關心이 있는 가운데, 明에서 弘治5年(1492) 年末에 그의 《心經》을 註

6)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 10.

7) 上揭書, p. 17.

8)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5~1953) 10, p. 285. (以下「實錄」이라 略稱한다)

9) 尹炳泰, 前揭書, p. 35.

記한 《心經附註》가 刊行되었으니, 우리 使臣의 눈에 띄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心經附註》를 傳來한 正確한 時期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尹南漢教授에 의하면 《心經附註》가 우리나라에 傳來한 것은 中宗 35年(1540) 以前으로 보고 있다.¹⁰⁾ 그것은 옳은 말인것 같으니, 우리나라에서는 中宗 35年(1540) 以前에 刊行된 《心經附註》가 있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가 있다.

아래에서는 退溪의 後論을 붙이지 아니하고 刊行된, 退溪가 後論을 지은 明宗21年(1566) 9月 以前에 刊行한 版本들을 刊行한 順序에 따라 다루어볼까 생각한다.

1. 中宗18年(1523) 以前 光州刊 木板本

이 刊本은 《韓國冊板目錄總覽》에서

心經付註

光州. 12, 13, 14, 15,

心經附註

光州. 51—3239, 52—86.¹¹⁾

라 있어, 光州에서 刊行한 《心經附註》가 있음이 알려져 있었다. 前者의 書名中에서 “付”는 “附”의 略字이므로, 後者와같은 책임을 알 수 있다. 前者를 引用한 文獻은 《攷事撮要》로서, 12는 宣祖1年(1568)版이고, 13은 宣祖 9年(1576)版, 14는 같은해의 水標橋版, 그리고 15는 宣祖18年(1585)版이다. 그리고 後者の 51은 卞穉의 《朝鮮書誌》에서 52는 朝鮮刊行會刊의 《朝鮮古書目錄》에서 採錄한 것이다. 이와같은 文獻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光州刊 《心經附註》의 冊板은 宣祖1年부터 宣祖18年사이의 調査에서는 在在하였으며 또 光州刊本은 늦어도 宣祖 1年 以前에 板刻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光州刊 《心經附註》는 오래동안 逸失된 줄 알았으나, 最近에야 山氣文庫에 一本 남아있음이 알려졌다.¹²⁾ 《山氣文庫目錄》에 集錄된 이 책은 木板本으로 모두 4卷 1冊이며 크기는 세로 31.5cm 가로(폭) 21cm의 線裝本이다. 이책의 卷首에는 程敏政의 序가, 卷末에는 같은 程敏政의 識文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4卷으로 分卷된 차례도 〈心經總目〉의 차례와 같은 것 같다.

이 光州本の 版式을 參考로 보면

四周雙邊. 半匡: 25×18.1cm. 有界. 10行 23字, 小字雙行. 版心: 上下 內向四卉花紋魚尾와 같다. 이로 보아 光州刊本の 底本이된 明刊本은 10行 23字本이 아니었다 짐작된다. 이책이 光州에서 刊行되었다는 刊記가 없어 正確하게 언제 光州의 어디에서 刊行하

10) 尹南漢, “中宗代의 道學과 心學化運動, 陽明學의 東傳問題와 관련하여,” 史叢, 第二十一—二十二合輯 姜晉哲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77.10), pp. 459~496.

11) 尹炳泰, 韓國冊板目錄總覽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p. 278.

12) 山氣文庫目錄 (서울, 通文館, 1976), p. 27.

였다는 것은 알 수 없으나, 多幸하게도 下表紙後面에

右心經附註 湖南光州本 嘉靖二年癸未春 余遊學・因得之

라는 舊藏者의 取得事實이 墨書되어 있다. 이글로 미루어 보아, 中宗 18年(1523) 봄에 求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던 光州刊本은 中宗18年 以前에 刊行된 것은 틀림없겠지만, 그 正確한 年月日은 알 수 없다. 光州에서 이 當時에 木板으로 책을 刊行하였던, 반드시 當時의 全羅道觀察使의 命에 의하였거나, 그 承認이 있어야만 刊行이 可能하였을 것이다.

이 當時의 全羅監司를 보면 거의 每年 更職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中宗 14年(1519)年에 잠깐 在任하였던 金安國이 해당할 可望이 크다. 金安國은 이보다 2年 앞서는 中宗 12年(1517) 3月15日에는 慶尚監司로서 《呂氏鄉約》을 印頒하였으며,¹³⁾ 또 이듬해인 中宗 13年(1518) 4月에는 임금에게 《正俗》등 여러책의 印頒을 請하였고,¹⁴⁾ 같은해 11月 22日에는 明에서 質來한 《延平問答》等を 임금에게 올려서 印頒할 것을 請하였으며,¹⁵⁾ 그가 《心經附註》를 愛讀하였고, 弟子에게도 이책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臨終時에는 弟子인 許南溪에게 이 책을 물렸다는 얘기¹⁶⁾ 등이 있는 것을 考慮한다면 金安國이가 全羅道觀察使로 在任하였던 中宗14年(1519)頃에 光州牧使에게 시켜서 손쉬운 이 《心經附註》를 刊行하게 하였을 可能性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더 正確한 記錄이 있는 文獻이 나타나기까지는 斷定을 保留할 수 밖에 없다.

退溪가 《後論》을 짓기 以前에는 이 光州刊本도 본 일이 있었던 것 같다. 《退溪先生續集》에 보면 宣祖 3年 庚午(1570)에 尹根壽에게 보낸 答書가 있는바, 거기에

・光州海州兩本 皆未盡善 須通考諸本 今在山舍 光・海二本 適皆爲人取去 在他¹⁷⁾

라하여, “具景瑞가 《心經》의 疑訂을 보냈는데 어느版本을 보았는지 알 수 없으나… 光州와 海州刊의 두책은 남이 가져가고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보면 退溪는 이 光州本을 본 것 같으며, 또 이 光州本을 最初로 求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는 退溪가 明宗 9年(1393)에 上舍 黃某를 찾아서 처음으로 《心經》을 보고 종이를 주고 《心經》1部를 求한 일이 《退溪先生言行通錄》에 記錄되어 있다.¹⁸⁾ 이 때는 光州刊本이 刊行된 中宗 18年(1523)보다 10年後의 일이므로, 退溪가 明版本을 求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도 이 光州刊本을 처음으로 求하였을 可能性이 가장 크다.

13) 註 6同書, p.45.

14) 上揭書, 同面.

15) 上揭書, p.46.

16) 尹南漢, 前揭論文, p.492.

17) 李滉, 增補退溪全書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1), 三, p.107 上.(以下「影印本」이라 略稱한다)

18) 上揭書, 四, p.23下右 및 24上左.

2. 明宗19年(1564)頃 平壤刊 木板本

이 木板本은 그 實物이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에 있는 薪菴文庫에 收藏되어 있다. 모두 4卷 1冊으로, 크기는 세로가 33.2cm이고, 가로(폭)가 22.1cm인 縑裝 方冊本이다. 그 차례와 張數를 보면 아래와 같다.

心經附註序	2張
心經總目	3張
心學圖	1張
心經附註卷一	25張
心經附註卷二	26張
心經附註卷三	21張
心經附註卷四	26張
〔序後, 心序後〕(版心題)	3張
〔心跋〕(版心題)	1張

이 책은 마지막에 있는 〈心跋〉 1張을 除外하고는 前記 山氣文庫本과 같은 體裁인 것 같다. 이책 卷一 첫張 앞면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匡: 22.6×17.5cm. 有界 10行 23字. 版心: 上下白口(或 上下細黑口) 上下內向黑魚尾, 「心卷一」(張次)

와 같다. 이 版式으로 보아 前記 光州刊本 보다는 版面이 작아졌지만 行字數는 같은 것으로 보아, 光州刊本이나 그와 같은 底本을 利用하여 刊行한것 같다.

이 책이 平壤에서 刊行된 것은 마지막에 있는 〈心跋〉의 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 글에는

我國文治・惟關西嶺北二道 典籍有關焉耳 今方伯鄭相公宗榮撥轡之初 慨然以興斯文 作人材爲己責 及以西山眞氏心經 繙梓廣布 欲使學者知所求・又懼典籍之不足也 則首刊心經 開示多士・通政大夫 行肅川府使盧慶麟謹跋

이라는 얘기가 있어 平安道觀察使로 赴任한 鄭宗榮에 의하여 興學의 한 方便으로 《心經附註》를 먼저 刊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平壤에서 刊行된 《心經附註》는 宣祖18年(1585)까지도 그 冊板이 健在하였던 모양으로, 그해의 《攷事撮要》平壤의 冊板條에 “心經”이라고 記錄이 남아 있다.¹⁹⁾

이 《心經附註》를 刊行할 때에 刻手로는 文某 등이 動員된 것 같으니, 卷一의 第11張과 第12張 版心の 上魚尾 속에 陰刻白字로 「文」이라는 刻手銘과 第25張의 版心 上魚尾속에 「土」라는 刻手銘이 있어 짐작이 간다.

그런데 이 平壤刊 《心經附註》에는 刊行場所를 알려주는 前記 跋文은 있지만 正確한 刊行時期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刊行時期는 鄭宗榮과 盧慶麟의 在職期間

19) 魚叔權, 攷事撮要 (서울, 南文閣, 1974), p.6.

에 의하여 推定할 수 밖에 없다.

鄭宗榮은 草溪人으로 中宗8年(1513)에 出生하였는데 金安國에게 修學한 사람이다. 中宗 38年(1543)에 文科에 及第한 다음에는 계속 벼슬이 올라 江原道와 慶尚道 觀察使를 지냈다. 그가 平安道の 觀察使로 任命된 것은 《實錄》에 따르면 明宗18年癸亥(1563)11月11日丙戌이었으니,²⁰⁾ 平壤에 到任하자 書院을 세우고, 또 興學에 힘썼었다. 이는 前記한 跋文에서도 밝혀져 있지만 《平壤志》에 보면 〈宦蹟〉條에

鄭宗榮 癸亥 兼府尹 力於興學²¹⁾

이라고 할만큼 매우 높은 興學의 熱을 가졌던 사람이다.

한편 盧慶麟이 肅川府使로 在任한 것은 明宗19年甲子(1564)를 前後한때 간다. 《實錄》에 의하면 같은 해 12월에 아래와 같은 記事가 있어 그가 在任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肅川府使盧慶麟 爲親民之官 務恤生民 繕治學校 多有善政 至爲可嘉 各各加一資²²⁾

이에 따르면 盧慶麟도 觀察使인 鄭宗榮과 마찬가지로 興學에 힘썼으며, 따라서 鄭宗榮이가 《心經附註》를 刊行할 때에 그에게 跋文을 부탁한 것 같다. 盧慶麟이가 肅川府使로 在任하고 있을 때에 鄭宗榮도 계속 觀察使로 在任하고 있었으니, 같은 해(1564) 10月の 《實錄》記事에 그의 啓本을 引用한 것을 記錄하여 둔 것이 있는 것²³⁾을 보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사람이 同時에 在任하고 있었던 明宗 19年(1564)頃이야말로 平壤에서 《心經附註》를 刊行한 時期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鄭宗榮이 金安國의 門人인 것으로보아, 그가 刊行한 책은 金安國이 준 책으로 刊行하지 않았나 생각되나 版面이 작아진 것으로 보아 그대로 覆刻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3. 明宗 19年(1564)頃 海州刊本

이 책에 대하여는 退溪가 趙穆에게 보낸 答書에

· 心經 近西海柳監司印寄來一件²⁴⁾

이라 하였고, 또 前記 光州刊本에서도 言及한 것과 같이, 退溪가 宣祖 3年庚午(1570)에 尹根壽에게 보낸 答書에서 言及하고 있는 것을 보면 海州에서 刊行한 《心經附註》가 있어 退溪가 본 것을 알 수 있다. 退溪가 趙穆에게 보낸 答書가 明宗 20年(1565)

20) 實錄, 20, p. 676.

21) 尹斗壽. 平壤志 (서울, 平南民報社, 1964), 三, 第23張 앞面.

22) 實錄, 20, p. 709.

23) 上揭書, p. 708.

24) 影印本, 一, p. 558下.

의 일이고, 또 當時 海州監司가 柳氏라 하였으니, 이는 柳仲郢로서 그가 黃海道觀察使로 赴任하였던 것은 明宗19年甲子(1564)7月이니, 이때에 海州에서 《心經附註》를 印刷하여 보냈을 可能性은 크다.

海州에서 《心經附註》를 어떠한 方法으로 刊行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宣祖 18年(1585)에 刊行한 《攷事撮要》의 海州條에 《心經附註》의 版本이 들어 있지 않는 點과, 이 當時(1564)에 海州에서 《朱子書節要》와 같은 방대한 책을 活字로 印出한 事實²⁵⁾이 있는 點 등을 考慮한다면 아마도 活字로 刊行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책은 退溪의 〈後論〉이 이루어지기 前에 刊行된 책이므로 〈心經後論〉이 없이 刊行되었을 것이며, 그 底本은 前記한 光州本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 海州刊行은 分명한 刊記나 印出記가 있는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책이 나타남을 기다려 後考할 수밖에 없다.

Ⅳ. 心經附註와 退溪

本章에서는 退溪가 어떻게 《心經附註》에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또 《心經附註》를 어떻게 다루었나에 대하여 言及할까 생각한다.

1. 心經附註에 接함

退溪가 《心經附註》를 처음 본것은 서울에 上京하여 成均館에 遊學할 때의 일인것 같다. 〈心經後論〉의 첫머리에 보면

晁少時游學漢中 始見此書於逆旅 而求得之²⁶⁾

라있어 “逆旅” 즉 客觀에서 얻어본것 같다. 《退陶先生言行通錄》에 보면 艮齋 李德弘의 《溪山記善錄》을 引用한 말이 있는데, 여기에도 비슷하게

先生 嘗游學泮宮 所交者 惟金河西麟厚(字厚之)一人而已 嘗訪上舍 姓黃人 始見心經附註 心基受之 授紙求得一本・²⁷⁾

이라는 말이쓰여 있다. 이 艮齋의 記錄에 따르면, 退溪가 泮宮에 遊學하였을 때는 마침 己卯士禍를 겪은때라 사람들이 學問을 忌避하고 세월을 보낼때에 오직 退溪만이 規則에 맞는 言動을 하시고 사귀는 사람은 오직 金河西麟이었는데, 한번은 黃某라는 上舍를 訪問하였다가 《心經附註》를 처음 보고 마음에 사랑하여 종이를 주고 1部를

25) 註 1 同, p.120~122.

26) 李晁, 日本刻版 李退溪全集, 阿部吉雄編 (東京, 李退溪研究會, 1975), 下, p.483. 下右. (以下「日本影印本」이라 略稱한다)

27) 影印本, 四, pp.23 下左~24上右.

얻었다고 한다.

退溪가 泮宮에 游學한 것은, 〈年譜〉에 따르면

十二年癸巳〈先生三十三歲〉

泮宮

流輩多敬服

秋下邳道經鹽州見慕齋金先生・²⁸⁾

이러한 것으로 보아, 退溪가 33歲인 中宗 28年(1533)年初부터 가을까지였지 않나 생각된다. 그는 가을에 下邳하면서 오는 길에 金安國을 찾아뵈었는데, 이 때 同行한 사람은 後日 三溪書院에 享祀된 忠定公 權楨이었다.

그때 退溪가 黃某로부터 求한 《心經附註》는 光州刊本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이는 前述한 바와 같다.

〈心經後論〉에 보면 “…其初感發興起於此事者 此書之力也 故平生專信此書…”라 쓰고 있다. 즉 《心經附註》를 보고 心學에 관한것을 처음 느낀 것 같다. 이와같은 얘기는 門人들에게도 하였던 모양으로, 艮齋의 글을 引用한 것은 《退陶先生言通錄》에서는

先主曰言吾得心經 而後 知心學之淵源 心源心法之精微 故平生信此書 如神明 敬此書 如嚴父²⁹⁾

라고 적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退溪가 心學의 淵源을 알게되었고 또 心法의 精微한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 책을 神明같이 알고 嚴父같이 恭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心經의 精讀과 中廢

退溪가 黃上舍로부터 《心經附註》를 求得한 다음에는 매우 열심히 읽어본것 같다. 艮齋가 쓴글에 의하면

人見之 或不分句讀 惟先生閉門數月 沈潛反覆 或驗之踐履之實 或察之義理之精 或以文義推之 或以他書考之…³⁰⁾

라 하여 다른 사람들은 분별없이 읽었으나 오직 退溪만이 數個月間이나 反復해서 읽고 究理하면서 精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退溪는 한때 病으로 因하여 《心經附註》를 덮어두고 있었던 것 같다. 〈心經後論〉의 뒷머리에 보면

雖中以兩發 平生專信此書 亦不在四子近思錄之下矣 ³¹⁾

28) 上揭書, p.115上.

29) 上揭書, p.24上右.

30) 上揭書, 同面.

31) 日本影印本, 下, p.483下.

라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退溪의 〈年譜〉나 《文集》 속에서는 오래동안 《心經附註》의 얘기가 없다. 《心經附註》에 관한것은 明宗 8年(1553)에야 보인다. 그 해에 琴蘭秀가 退溪에 書簡을 보냈던 모양으로 退溪가 보낸 答書가 《退溪先生文集》에 실려있다. 거기에서 退溪는 《心經附註》에 引用된 《中庸》首章 아래에 있는 朱熹의 글을

未發之前 不可尋覓 已覺之後 不容安排 惟平日莊敬涵養³²⁾

이라는 一節을 들고 얘기하고 있다.³³⁾ 그리고 같은 해에는 그에게 〈心經附註次琴聞遠韻〉이라는 詩도 지어 보내고 있다.³⁴⁾

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退溪는 《心經附註》의 考究는 中斷하였지만, 이 冊을 四書나 《近思錄》과 함께 항상 專信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心經附註의 再究와 誦讀

退溪가 《心經附註》를 다시 考究하게 된 것은, 明宗 10年(1555) 봄에 病으로 因하여 兪中樞府事의 벼슬을 辭任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인것 같다. 琴蘭秀에게 答書를 보낸 3年後인 明宗 11年(1556)에야 《心經附註》를 본 具體的인 얘기가 《退溪先生文集》에 나타난다. 그 해 趙穆에게 보낸 書簡에서 “學問의 뜻을 들 때에는 細心하게 工夫 하여야 한다면서, 이제 《心經》을 보니 매우 좋다”는 內容을 적고 있다.³⁵⁾

이때부터 退溪는 《心經附註》를 暗誦할 수 있을만큼 읽었던 것 같다. 《退溪先生言行通錄》에 보면, 鶴峯 金誠一이가 쓴 記錄이 있다. 거기에서

辛酉冬 先生居陶山玩樂齋 雞鳴而起 心莊誦一遍諦聽之 乃心經附註也³⁶⁾

라고 한것을 보면, 退溪는 明宗 16年辛酉(1561) 겨울에는 陶山의 玩樂齋에서 새벽에 起寢하자마자 《心經附註》를 莊誦한 것을 알 수 있다.

4. 心經附註에 대한 問答

退溪는 《心經附註》를 誦讀하였을 뿐만아니라, 멀리서 門人들이 물어오는데 대하여서도 親切하게 對答한 일이 많았음이 그의 文集에 나타난다. 明宗 18年癸亥(1563)에 黃俊良의 問目에 대하여 長文의 答書³⁷⁾를 보낸 것이라던지, 明宗 22年丁卯(1567)에 李德弘의 問目에 대하여 答³⁸⁾한 것이라던지, 宣祖 3年庚午(1570)에 栗谷 李穡의 問

32) 上揭書, p. 433下右 第 7行부터는 약간 다름.

33) 影印本, 二, p. 238下左.

34) 上揭書, p. 551上. 文末.

35) 上揭書, 一, p. 551上.

36) 上揭書, 四, p. 24下左.

37) 上揭書, 一, pp. 501~508.

38) 上揭書, 二, pp. 232下~234上.

目に 대하여 答한 것,³⁹⁾ 같은 해에 許篈에게 答한 것⁴⁰⁾ 등등을 보면 退溪가 《心經附註》에 대하여 매우 깊은 究理가 있게 對答한 것을 볼 수 있다.

5. 心經附註의 讀書指導와 教育

退溪는 自己가 《心經附註》를 專信하였을 뿐만 아니라, 門人이나 다른 사람에게 《心經附註》를 읽는 것을 매우 重要하게 알고 그 讀書指導와 教育에도 臨한 것 같다. 夢村 金眸가 《小學》·《近思錄》·《心經》중에서 어느 책이 學者들에게 가장 切要한 것인가”라고 물은데 대하여 退溪는

初學下手 用功之地 莫切於心經⁴¹⁾

이라고 대답하고 있고, 또 艮齋 李德弘의 글을 引用하여 記錄한 것에

先生教人 入先之以小學 次及大學 次及心經 次及語孟 次及朱書 而後及諸經⁴²⁾

이라 하야, 退溪가 《小學》과 《大學》을 가르친 다음에는 《心經附註》를 끝마치고서야 《論語》나 《孟子》 등을 가르친 것을 알 수 있다.

退溪가 《心經附註》를 門人에게 가르친 記錄은 《陶山及門諸賢錄》에 있는 門人의 이름아래에 모두가 表示하여 記錄하고 있다. 具體的으로 들면 朴七憲, 鄭惟一, 鄭崑壽, 洪可臣, 鄭述, 曹光益, 琴纓, 白見龍, 成裕, 琴義筈, 全績, 李純道 그리고 林芸 등의 이름아래에서는 《心經》을 特別히 指摘하고 있다.

退溪가 《心經附註》를 가르침 때에는 책에 있는대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대목에 이르러서는 旁註까지 손수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이 楓巖 文緯世의 記錄에 아래와 같이 보이고 있다.

· 嘉靖甲子春 從姊兄朴竹川光前 · 謁先生于陶山 乙丑夏携內弟尹·剛中 欽中 同往受學於陶山 先生授以心經 註中疑難處 先生手自旁註以教⁴³⁾

退溪는 여름이 되면 避暑도 兼하여 易東書院 쪽에 갔던것 같으니, 그때에는 易東書院에서도 《心經附註》를 講한 것 같다. 이는 退溪가 明宗 22年丁卯(1567)에 具贊祿에게 보낸 答書들 속에

晁將入溪上 爲諸人所勸 換來避暑 於易東書院 共讀心經 頗適意也⁴⁴⁾

39) 上揭書, 一, p. 377.

40) 上揭書, 二, p. 187下.

41) ㄱ. 上揭書, p. 26.

ㄴ. 上揭書, p. 171.

ㄷ. 上揭書, p. 377下.

42) 上揭書, 四, p. 31上.

43) 上揭書, p. 36下左.

44) 上揭書, 二, p. 236上.

라 하고, 또

易東相聚固定是好事 共讀心經 甚有議論⁴⁵⁾

이라고 있어, 易東書院에 간 것은 退溪가 老齡이므로 門人들의 勸에 따른 것 같다. 이와같이 여름마다 易東書院에 나가는 일과 《心經》을 講한 일은 退溪가 돌아가시는 해에까지 繼續되었던 것 같으니, 《年譜》의 宣祖 3年庚午(1570)條에 보면

七月至易東書院 與諸生講心經⁴⁶⁾

이라 記錄되어 있다. 退溪는 돌아가시기 3個月前까지도 易東書院에 다녀오셔서 門人들에게 心經을 講한 것 같으니, 《年譜》의 같은 해 九月條에

復出陶山 與諸生 講啓蒙·心經⁴⁷⁾

이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6. 心經附註의 校訂

明宗 20年乙丑(1565)에 海州에서 柳仲郢가 《心經附註》를 刊行하였을 때에는 그 校正을 退溪에게 부탁하였던 것 같다. 退溪가 같은 해에 趙穆에게 보낸 答書에

心經舊件送去 但此一件 少時妄加點抹剪補 其勘正亦殊疎漏 不足憑校 近西海柳監司 印寄來一件 欲加校點..⁴⁸⁾

이라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 答書를 보던 退溪는 前에 校點하여 두었던 일도 있었던 것 같다. 退溪가 校訂을 볼 때에는 반드시 틀렸다고 생각되는 舊字는 紙頭에다 旁註를 단 것 같다. 이에 대하여는 金誠一이가 記錄한 것에

· 改舊字 必旁註紙頭曰 某字疑 當作某字 其詳慎精密如此 ..⁴⁹⁾

라하여 退溪가 매우 자세하고 신중하며 또 精密하게 校正한 일을 記錄하고, 趙穆이 본 校訂方式에 대하여 言及한 것이 있다.

V. 結 言

以上에서는 退溪李滉의 心學思想에 크게 影響을 끼친 《心經附註》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45) 上揭書, 同面, 下.

46) 上揭書, 四, p. 150下右.

47) 上揭書, 同面, 下左.

48) 上揭書, 一, p. 553下.

49) 上揭書, 四, pp. 26~27上.

《心經附註》는 宋의 眞德秀가 編纂한 《心經》中 眞德秀가 生存하고 있던 端平 1年(1234)에 刊行한 版本을 底本으로 하여, 明의 程敏政이가 註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傳來한 《心經附註》는 篁墩 程敏政의 弟子인 沙溪 汪祚가 弘治 5年壬子 즉 우리나라 成宗 23年(1492)에 刊行한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眞德秀의 著作이 傳來하였고 또 刊行되었으므로 《心經附註》도 刊行되자 곧 傳來된 것 같다. 그 傳來한 時期는 中宗 18年(1523) 以前인 것 같으니, 이 때를 基準으로 하여도 30年의 隔差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刊行된 版本은, 退溪의 〈後論〉이 成立되기 以前의 것으로는 세가지가 알려져 있다. 하나는 中宗 18年(1523) 以前에 光州에서 刊行한 木板本이며, 또 다른 것은 明宗 19年(1564)頃에 平壤에서 刊行한 木板本과 海州에서 刊行한 책이 있다.

이 중에서 退溪가 본 分明한 版本은 光州刊本과 海州刊本이다. 退溪는 《心經附註》에 接하자 心醉하여 곧 한부를 求하였고 精讀하였다. 官職에서 물러나자 退溪는 《心經附註》를 다시 깊이 研究하고 每日 誦讀하였다. 退溪가 《心經附註》를 基本으로 하여 讀書指導를 行하고, 또 教材로 하여 教育까지 行한것은 그 當時로서는 重要的 事實이다.

이와같은 일이 있었기에 退溪는 〈後論〉이라는 名文까지 남게 되었다. 退溪의 〈後論〉이 붙은 《心經附註》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번 刊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稿를 달리하여 論及할까 생각한다.

本稿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退溪 〈後論〉의 著述 經過와 그 內容, 그리고 〈心經後論〉의 影響을 받은 後學의 著作에 관하여도 따로 다루어 볼까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 『明 史』 臺北：藝文印書館，1970. 影印本. (二十五史，49) 四.
- 『宋 史』 臺北：藝文印書館，1970. 影印本. (二十五史 36) 七.
- 尹南漢，“中宗代의 道學과 心學化運動：陽明學의 東傳問題와 관련하여.” 『史叢』 第二十一・二十二合輯：姜晉哲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1977. 10, pp. 459~496.
- 尹斗壽，平壤志. 서울：平南民報社，1964. 影印本.
- 尹炳泰，韓國書誌年表. 서울：韓國圖書館協會，1972.
- 尹炳泰，韓國冊板目錄總覽. 城南：韓國精神文化研究院，1979.
- 魚叔權，攷事撮要. 서울：南文閣，1974. 影印本.
- 李 滉，日本刻版 李退溪全集，岡部吉雄 編，東京・李退溪研究會，1975. 影印本. 2冊
- 李 滉，增補 退溪全書. 서울：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1971. 影印本. 5冊
- 朝鮮王朝實錄. 서울：國史編纂委員會，1955~1958. 影印本. 48冊：總索引，1冊.
- 眞德秀，眞西山心經. 上海：上海新學社，民國 9(1920). 鉛印本. 1冊.